



선암사 홍매화.

조계산 남쪽 선암사는 태고총림이다. 절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고, 휘어진 길모퉁이마다 아름답게 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어서 오랜 고찰임을 증명한다.

맨 먼저 만나는 건물은 강선루다. 강선루 아래쪽의 홍교는 새로 보수를 하였지만, 옛 맛이 그대로 살아 있다. 강선루는 두 줄기의 물이 만나는 곳에 세워졌는데, 돌기둥의 길이가 제각각이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려한 선조들의 자연관이 그대로 살아 있다. 강선루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길은 어느 절과 다르게 길다. 굽이굽이 돌아서 만난 건물이 강선루인데, 여기에서 두 굽이를 더 가야 일주문이 나타난다. 녹차로 유명한 곳답게 야생차밭이 도처에 널려있다.

일주문에서 범종루, 만세루, 대웅전에 이르는 건물의 배치가 이채롭다. 단정한 건물들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 일주문에서 오른쪽으로 몇 발 내디딘 곳에 범종루가 놓여 있고, 그 뒤의 건물들도 각각 조금씩 옆으로 비껴섰다. 그런데 흐트러져 보이지는 않는다. 뽀뽀뽀뽀 서 있으면서도 정교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선암사의 진면목은 건물 안의 벽화나 천장화까지 보아야 비로소 드러난다. 지금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문장살 문양도 선암사만한 곳이 드물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암사를 선암사에게 한 것은 무우 전 열 620년 되었다는 홍매화다. 꽃샘추위 탓에 갓 피어난 홍매화의 꽃잎이 조금 오그라들었다. 사진작가 몇 사람이 홍매의 속살을 더듬고 있다.

선암사는 선패과 함께 다행이 유유히 이어져온 절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물론이요, 차를 좀 마신다는 다인이라면 선암사 녹차를 명품 반열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그 수확량도 만만치 않아서 선암사에서 차일 때는 날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대거 동원되기도 한다. 차와 선암사의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선암사 사하촌인 괴목 마을도 녹차와 인연이 깊다.

마을 뒷산이 거의 야생 녹차가 자라는 괴목 마을. 마을은 골짜기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행정구역

# “차와 함께 맺은 인연 깊어요”

상으로는 승주읍 죽자리 2구. 마을 안을 한참이나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고로쇠물을 받기 위해 산으로 갔을 것이라 한다. 가게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북당골이라고 있지. 비석 있는데, 부도가 있어요. 거 뒤로 북당골이고, 일주문 우측에 거가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 새동네 땅. 찻집에서 송광사 가는 길로 냇물 가에 거가 옛날에 집터라. 밭이 있고, 쪼까만 다리 하나 있고, 거가 부도 하나 있어요.

## 차일 따는 날이면 주민들 대거 동원되기도 선암사 녹차 명품 반열에 올린 '일등공신' 고로쇠물 채취 수입 마을 살림에 큰 보탬

공마당. 공마당이라고 해요.” 이영선(64·죽자리 괴목)씨의 입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마을 이름들이 줄줄이 나온다. “상발땀이, 산발땀이라고 해. 옷삼발땀, 아랫삼발땀.” 곁에 있던 장봉례(77·괴목)옹이 거든다. 마을 노인정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동네 어른들이 다 물 뜨러 가고, 여든 한 살 드신 분도 불 받으러 가” 한다. 몇 시간이 지나 어둑발이 성큼 마을로 들어선 후에야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난다. “물 안 나드라. 참말로 몸써리나게 안 나오네. 추워서 안 내놓가, 더워서 안 내놓가. 참말로 안 나오네.”

지막기(64·괴목)씨가 산에 갔다 왔다면서 한 마디 한다. 조계산 골짜기는 고로쇠나무가 많은데, 전부 선암사 소유인자라, 마을 사람들이 고로쇠물이 나올 때면 일정한 액의 세를 주고, 한 골짜기씩 밭아 고로쇠물을 채취한다고 한다. 고로쇠수액이 나오는 양은 날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한 해에 한 가구당 60통쯤 얻는다. 약 30가구쯤 되니, 고로쇠물로 밭어 들이는 마을 수입이 1년에 1억원쯤 된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가 승려 생활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스님들 내려와 놀다가 해지면 올라가고 그랬죠.”

예전에는 스님들의 속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옛날 스님들의 후손이 지금도 사느냐고 하였던데, 지막기씨가 “얼마 없어요” 하더니 손가락을 꼽아가며 수를 센다.

“꽃감, 동기생, 감금남 직 아버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하더니, “우와 많네. 여덟 명이나 되네.” 녹차 이야기가 나오자 저마다 한 마디씩 한다.

“동네 여자 전부 다 차 따는 기술자이러우. 이녀 목을 갖은 집에 서다 해요. 선암사에서 차일 따 때 우리 마을 아줌마들 딸을(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장연희(61·괴목)씨의 말이다. 각 집마다 자기 소유의 차나무가 있고, 거기서 차일을 따다가 각자가 뒤에서 음용한다고 한다.

“깨만 술단지에다 해 갖고 다 따지요. 몇 나무만 있어 갖고, 우리 목을 놓만 해요. 아홉 번 뒤은단 한디, 내가 보기에는 더 뒤은단이다. 내가 북아봉께.”

그 차맛이 궁금하다고 하였더니, 기어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차를 대접해 준다. 은은하고 깊은 맛이 수준급 수제차이다. 선암사 골짜기에 차량이 가득하다.

선암사=이대홍(사진·본지 객원기자)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 ⑥ 조계산 선암사



선암사.



괴목 마을 전경.

### 야생차 명인 신광수씨

#### “상생의 원리로 뒤어요”



국가 지정 유일한 야생차 명인 신광수씨(사진)를 만난 날은 노랗게 산수유 꽃들이 내걸려 있었다. 선암사 고매(古梅) 꽃밭을 을 터트렸다. 차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선암사의 주지였던 부친에 대해 먼저 말했다. 그의 부친은 선암사 주지를 지낸 바 있는 용곡 스님으로 서산 대사로부터 시작된 선암사 차맥을 이어온 분이다. 선친의 영향으로 차밭이 늘어났다는 그. 그가 좋은 차의 조건으로 맨 처음 내세운 것은 재료였다.

전 세계적으로 차의 종류는 650종에 이른다. 그중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20여 종 되는데, 80~90%는 아부기디를 비롯하여 1900년대 이후 개량된 것들이다. 그가 재료로 쓰는 것은 개량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소엽종이다. 수확량이 개량종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

평생 차를 마시며 서너 번 정도 소름이 끼칠 만큼 머리 속이 서늘해지며 맑아지는 진귀한 경험을 했다. 그는 최고의 차 맛을 위해 그는 지금도 손수 차를 따고, 날마다 작업일지를 쓴다. 82년 동경에서 열린 세계 다류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뒤는 기술도 남다르다. “꼭우 때는 22도쯤 기온에서 열을 정도 지란 일이라 낮은 온도에서 따야 하고, 일하 때는 30도쯤에서 지란 일이라 가마솥 온도를 300도쯤 올려야 하지요.” 솥의 온도뿐만 아니라, 유념 방법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찻감이다. 그가 찻감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참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밤나무 네 가지이다. 다른 나무는 차향을 맡치기 때문에 피한다. 보통 2년 전에 준비를 하여, 나무 특유의 진액이 빠진 후에 찻감으로 쓴다.

작년에는 일본의 차 전문 회사인 상다화와 차 수출 계약을 했다. 세계 최고의 차만을 취급하는 상다회에서 신광수 명차를 알아본 것이다. 2009년까지 100억 원 상당의 차를 일본에 수출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상생이죠.” 재료 선택이나 제다과정, 찻감 고르는 데까지 상생의 원리가 들어 있다는 설명이다.

# 정종철(서봉)의 성명서는 거짓입니다.

## 흥국사는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종단에 무상기증 하였습니다.

청정계율종단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단과 총무원장 큰스님을 욕되게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성명서에 진실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고자 함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종철(서봉)은 2006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에 임종하였으나 장애자 성폭행, 여신도 성추행 등으로 강서 경찰서에 고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07년 2월 22일 제적된 승려입니다. 현 흥국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 어른 고(古)김삼두 부친께서 장유중학교를 설립하시고, 폐사지나 다름없던 흥국사 터를 매입하여 창건하였습니다. 본인 김용규는 창건주(신도회장을 맡고 있음)로서 흥국사 신도회 부회장과 총무, 교무 등 신도회임원들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종단을 찾아갔습니다. 전 흥국사 주지 정종철(서봉) 승려를 종단에서 제적해주시던지 옷을 벗겨 달라고 했습니다. 계율이 청정한 종단에서 새벽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여신도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으며 사찰재산 수억원을 횡령하였고, 대한불교법화종에게 3억5천을 받고 절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으로 법화종 총무원장과 계약하였습니다. 이런 몰염치한 승려는 제적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떠한 종단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2월21일 종단스님들이 모여 법회를 하는데 정종철(서봉)의 가족인 동생이 스님들과 법당에 신나 한말 가랑을 뿌리고 난동을 부렸으며, 여러 스님들은 치료중에 있고, 법회를 방해하여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흥국사는 창건주인 본인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법화종과 짜고 흥국사를 거래하고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원고로 정종철을 피고로 소송하고 있으나 절을 팔려고 약속하고 원고쪽의 소송이 맞다고 하는 사기 소송을 하는가하면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기 2551(2007)년 3월 19일

명월산 흥국사 창건주·신도회장 김용규 합장